가정교사

글_ 김성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sykim@kaeri.re.kr

1950년대 말 '프랑켄슈타인의 역습' 이라는 공포영화가 상영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상영된 '프랑켄슈타인' 은 기본적으로 보기 흉한 모습의 인조인간이다. 아이들의 동요에서 나오는 인조인간 로봇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통, 머리, 팔다리를 이어 붙여 만들어진 인간이다. 이 인조인간은 두뇌가 명석한 한 의사의 작품으로서 '프랑켄슈타인의 역습' 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어렸을 때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다. 모든 교육을 일찍 마친 주인공은 성장하여 의사가 되고, 죽은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연구에 성공하여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프랑켄슈타인' 이다. 이 영화에서 가정교사는 총명한 어린 아이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고용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정교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개인뿐 아니라 하나의 나라에도 가정교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가정교사는 일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본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한동안 강점했다는 역사가 있어서 가정교사로 생각하기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가깝고 문화권도 비슷한 점이 많아 좋은 가정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본이 1992년 이후 연구개발비 투자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한다는 것, 또는 지금 이공계를 살리기 위하여 기술연구개발비로 연간 15조엔을 투입하는 내용 같은 것만 배우자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래를 위하여 기술연구와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일본의 나라운영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과학기술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연구와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정리해고하기보다는 급여를 줄이더라도 계속하여 일을 하도록 유지하고,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은 약 100년 전부터 서양 과학을 접촉하게 하고 기초과학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자연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에 무리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다나카 고이치 씨는 "연구자는 실패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고 했단다. 연구나 기술개발의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우리에게 실패를 즐길 수 있는 때가 언제 올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연구했다면 다 성공해야 하고, 그래야만 다음에 계속해서 연구나 기술개발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세계 제1의 기술도 많이 발표되는 모양이나, 실패 없이 항상 성공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긴 세월을 결과가 불확실한, 그렇지만 언젠가 노력의 결과가 돌아오는 연구와 과학기술의 개발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회풍토가 정착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 일본은 어느 선진국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대국이다. 미국의 첨단장비에도 일본기술이 요소요소에 들어있어 언젠가 일본 정치인이 "일본도 미국에 'no'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큰소리 친 적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기간을 통하여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고 과학기술인들을 보호 · 육성하고 실패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기술을 개발해 온 일본의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과 운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도 과거의 과학기술발달사를 살펴보면 일찍부터 서양에 앞서서 개발된 우리의 기술이 많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 짧은 기간에도 조기교육을 통하여 많은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우리 나라 경제성장에 많이 기여하여 왔고 부분적으로 선진국수준의 기술기반도 구축하였다. 이제는 이 기반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연구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성숙한 풍토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실패도 받아들일 줄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과학기술인들의 맡은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배우면서 앞날의 튼튼한 기술구축을 위해서 말이다. ST